

월요논단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우리에게는 공원이 필요하다

제주는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섬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원은 의외로 드물다. 관광객에게 보여줄 자연은 풍부한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94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정신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55% 낮았다. 또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넓은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작업 기억과 IQ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공원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야외 교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공원은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준다. 산책 중 나누는 짧은 인사, 벤치에서의 대화 한마디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원이 세대별 유대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뛰놀고, 부모는 함께 걷고, 노인은 그늘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일상적인 장면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유럽 93개 도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시 수 관율을 30%까지 높이면 폭염 사망을 약 40%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공원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세대를 지켜내는 안전망임을 알 수 있다.

을 줄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 공원이 맡는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결국 한 도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그곳의 공원 크기와 질이 말해주고 있다. 제주가 진짜 '삶의 질'을 이야기하려면 관광객을 위한 경관만큼 주민을 위한 공원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토지 확보와 예산 편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원을 단순한 녹지나 체육 시설로 보는 시각을 넘어, 세대가 어울리는 생활 복지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첫 학교,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복지관이 되는 곳. 제주가 일상의 숲과 공원의 섬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세대 모두가 행복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

'1단체 1오름 가꾸기' 환골탈태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1단체 1오름 가꾸기'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된다. 제주도는 활동이 부진한 기존 오름 가꾸기 참여 단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참여 단체를 모집키로 하는 등의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로 지정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터라 손질이 불가피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만의 독자적인 환경 정책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제주의 오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허술한 운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7월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운동도 입당시인 2012년 19개 단체에서 91건의 활동 실적이 등록된 반면 감사 시점인 2024년엔 6개

단체에서 19건만 확인됐다. 참여한 부실 단체에 대한 정비도 지적의 대상이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개선책을 내놓았다. 오름 가꾸기 재정비에 따른 참여 단체 모집 시 월 1~2회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분기 1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단체 1오름 리마인드 발대식' 개최와 함께 오름 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2개 우수 단체를 선정·시상하는 계획도 세웠다.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잊어서 안된다. 오름은 제주의 원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일제정비를 계기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물론 범도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마당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작은 장치



서강훈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화재 당시 보호자가 출근·외출로 부재중이었다. 화재는 발생 시 빠르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힘든 어린이들에게겐 위대로운 상황을 조래한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아이 돌봄 공백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거주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보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하는 가구다. 이들 가구에 대해 가구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3~4대를 무료 지원한다. 또한,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아이 돌봄 센터에서 대행 접수를 하거나 인근 119센터, 소방서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크기는 작지만,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빠르게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어 화재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뉴스-in

마감 앞둔 소비쿠폰 신청률 제고 안간힘

제주, 전국서 두 번째 낮아 노인복지정책 안내서 제작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에 10여 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제주 지역 신청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28일 24시 기준 신청·지급 현황을 파악해 공개한 내용으로 전국 평균 98.20%의 신청률 속에 제주는 97.76%로 서울(97.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 이날 기준 제주에서 1만4800여 명이 미신청한 것으로 제주도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것과 함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며 모든 도민이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 전진희기자

얼빠진 서귀포의료원... 도·의회 뭐 했나

서귀포의료원 운영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관 건립 등의 공사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밝혀져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5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의료원은 지난 2021년부터 총 58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급성기병상 증축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도 5억원 이상 종합공사 발주 전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게다가 출자·출연기관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공사비가 10% 증가 시 제주도 계약부서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도 무

시했다. 특히 중환자실 증축을 위한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의 공사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밝혀져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5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의료원은 지난 2021년부터 총 58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급성기병상 증축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도 5억원 이상 종합공사 발주 전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게다가 출자·출연기관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공사비가 10% 증가 시 제주도 계약부서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도 무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윤주(前 한국 공항공사-향년 7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9월 1일
배우자 이순숙
아들 양재형 며느리 고영미
딸 양유정 사위 강인엽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관수(1939. 11. 22.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용담로1길 1-16, (용담삼동)
상기자는 2025년 4월 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5년 8월 22일 제주지방법원 2025노단3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고마로 56, 10층 1009호 (일도이동, 삼부장미주상복합아파트)
· 송달장소 : 제주시 청양로 312, 4층(이도이동, 형제빌딩)
· 송달영수인 : 정준환
2025년 9월 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최은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방, 번기교체 제주작업/별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산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수은(1969. 6. 23.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성신로 9, 103동 102호 (연동, 대림아파트)
상기자는 2025년 4월 2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5년 8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5노단549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독짓골4길 9 G동 2호 (도남동, 대원상복수아파트)
2025년 9월 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양인자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송자료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 제주도 ☎010-7305-7819 제주도택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